

연구논문

청소년기는 초기 청년기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김동심* · 변종석**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KEEPⅡ) 1, 2, 5차에 모두 참여한 3,983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기 청년기의 행복에 미치는 청소년기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청소년기 가정환경(보호자 학력, 경제력, 정서적 지원, 문화적 배경), 청소년기 특성(성취도, 행복), 청년기 성과(자아인식, 사회적 관계, 건강상태)가 청년기 최종성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의 부모를 기반으로 한 가정환경 중 경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인이 청소년기 성취도와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청소년기 부모의 정서적 지원만이 청년기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청소년기 행복은 청년기 행복에 영향을 미쳤지만, 청소년기 성취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청년기에 형성된 자아인식, 사회적 관계, 건강상태는 청년기 행복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기의 행복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청년, 행복, 청소년기, 가정환경, 성취도, 자아인식, 사회적 관계, 건강상태

*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부교수(southpaw61@hs.ac.kr), 제1저자.

** 한신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jsbyun@hs.ac.kr), 교신저자.

I.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 22개 국 중 최하위이며(염유식·성시호 2021), 이는 2021년 한 해의 결과가 아니라 2009년부터 시작된 조사부터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문제이다. 행복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교육, 문화 분야와 관련된 객관적 행복지수는 높지만, 주관적 지표인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은 낮다(장유진 외 2020). 이에 대한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대학 입학 경쟁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가 지속해서 언급되고 있다(이지혜·최영출 2014; 장유진 외 2020). 청소년의 낮은 행복은 높은 자살률 및 우울증 증가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청소년 약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경험하며, 자살 생각 비율도 12.7%이다(교육부·질병관리청 2022).

그렇다면 청소년기가 지나고, 대입 경쟁이 끝난 이후의 청년은 행복할까? 청년기 또한 행복하지 않다. 20대와 30대 청년들의 행복도는 OECD 평균(만점 10점)인 6.7에 미치지 못하며, 각각 6.4와 6.5 수준이다(통계청 2023). 이들의 낮은 행복감은 장기적인 취업 난관과 함께 저임금으로 인한 주거 어려움, 장기실업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등과 관련되어 있다(한승헌·임다혜·강민아 2017). 특히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청년들의 실업,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쳐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배정희 2022). 이러한 낮은 삶의 만족도는 10~30대 사망원인의 40~50%가 자살인 것과 관련이 있다(통계청 2022).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복 수준은 생애 초기와 후반 사이에서 U자형 곡선을 그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연령별로 행복이 역 U자형을 나타내고 있다(허종호 외 2022; Asici & Sari 2021; Blanchflower & Oswald 2008). 이에 우리는 낮은 행복감을 가진 청소년, 청년기의 행복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과 청년의 낮은 행복감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횡단적 관점에서 현재 수준의 개개인이 가진 특성과 행복 사이에서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개개인의 가치관 형성, 사회적 관계 형성, 학업적 성취, 자기 계발이 궁극적으로 청년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간의 관계를 생애 전체를 고려한 종단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이는 행복이 장기적으로 이전 시기의 행복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Martin-Krumm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의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 Layard et al.(2014)가 제안한 성인의 행복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성인의 행복을 청소년기의 가정환경과 특징, 성과로 설명함과 동시에 청소년기의 공적 정책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모델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Nikolova & Nikolaev 2021).

먼저, 청년기의 행복에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이 끼치는 영향력을 부모와 관련된 변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 삶의 사회경제적 지위, 삶의 태도 등에 종합적 영향을 미친다(Aquilino & Supple 2001).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이 변화가 어려운 물리적 지원이 청년기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변금선·이혜림 2023; De Coninck, Matthijs, & Luyten 2019). 또한 부모의 지원은 정서적 지원의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배희분·서주현·김효선 2018; Asici & Sari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이하 SES)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청년기 행복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의 특성이 청년기의 특성인 자아인식, 사회적 관계,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대학생은 대학 입학 이후 자아인식이 형성되는 시기로, 자신의 신분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이 시기에 형성된 자아인식은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김택호·정형화 2019). 또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기로,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 및 리더십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 역시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송진열 2017).

본 연구는 특히 청년기 중 초기 청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기 청년기는 청소년기와 사회진출을 연결하는 시기로, 많은 사람이 대학에 입학하며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나 독립의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부모-자녀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이러한 추세는 COVID-19 대유행 이후에 더욱 강화되었다(김동심 2022).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부모의 과잉 간섭이 자아정체감이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이의빈·엄명용·김진원 2021; 정유진·김혜선 202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년기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Layard et al.(2014)의 행복모형에 따라 초기 청년기의 행복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소년기 특성 간의 관계에서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함으로써 변수 간의 관계를 종합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주영주 외 2009). 이를 통해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행복을 종단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이들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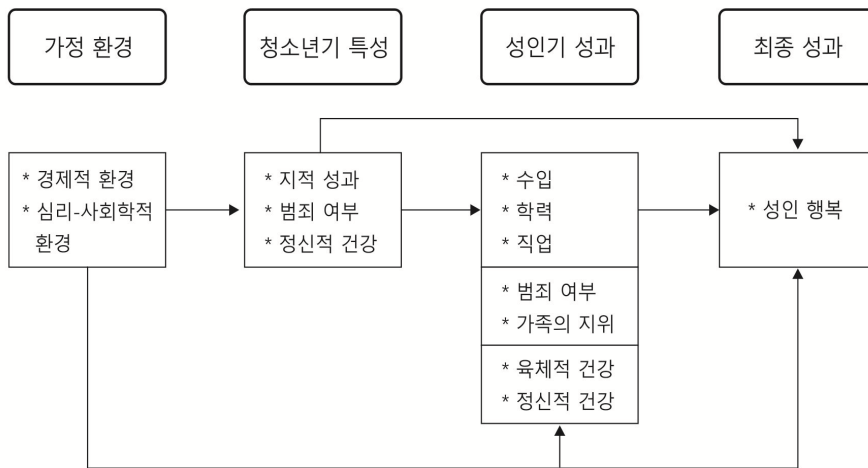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1.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행복

행복(happiness), 웰빙(well-being), 그리고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서로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이들의 정의는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웰빙은 자아실현적 측면의 심리적 만족을 강조하며(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5), 삶의 만족도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만족 수준을 평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행복은 웰빙과 삶의 만족도를 궁극적으로 포함한 개념으로, 종합적으로 좋은 모든 것을 나타내는 용어이다(Ng 2015; Veenhoven 2011). 따라서 각 연구에서 이 용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차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종합적 관점에서의 좋은 감정상태로 정의하고 논의하려고 한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코호트를 종단으로 추적하여, 어느 시기에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하겠지만, 자료수집이 어렵고, 세대별 특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이러한 연구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Blanchflower & Oswald 2004). 그런데도 Easterlin(2006)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기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연결성을 가지고 살펴봐야 함을 언급하였다. 즉, 생애 전반, 삶의 영역에서의 다양한 변인의 종합적 결과로서 행복을 다루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는 횡단, 종단, 실험적 연구를 분석하여 행복에 관한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종단연구에서 장기적인 행복은 개개인의 특성 및 환경과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인의 행복이 어떻게 구성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 Layard 및 동료 연구자들(2014)은 <그림 1>과 같이 삶의 만족도(본 연구에서는 정의에 따라 행복으로 지칭함)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성인기의 최종적인 행복이라는 결과가 가정환경과 청소년기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한다. 또한 성인기의 성과(경제적 측면 - 수입, 학력, 직업, 사회적 측면 - 가족의 지위, 범죄, 개인적 변인 -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최종적으로 성인기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 성인의 행복모형(Layard et al. 2014)

실제로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인의 행복에 청소년기가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Coffey, Warren, & Gottfried(2015)는 129명의 종단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인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밝혔는데, 아동 및 청소년기의 긍정적 정서가 성인기의 행복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Coffey & Warren(2020)도 13년에 걸친 112명의 종단데이터를 사용하여 29세의 자존감과 행복에 16세의 긍정적 정서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16세의 자존감은 29세의 행복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기의 행복에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Marquez et al. (2022)도 영국의 661명을 대상으로 17, 19, 21세에 행복과 정신건강을 측정하고, 이들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17세에서 19세의 전환기와 19세에서 21세 전환기 모두, 행복은 이전의 행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별과 상관없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배희분·서주현·김효선(2017)이 한국교육고용패널의 2007년도 고3이었던 학생 1,196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종단연구를 시행하였다. 청소년기의 부모의 물리적, 정서적 지원이 대학교 1학년의 전공만족도와 3년이 지나 성인이 된 후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부모의 물리적 지원은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성인이 된 후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Layard et al.(2014)의 모형을 기반으로 가정환경을 부모의 학력(남성 보호자 학력, 여성보호자 학력), 부모의 경제력(소득, 소비), 심리사회학적 환경으로 부모의 정서적 지원(부모와의 활동, 부모와의 대화), 보유 책 권 수를 선택하고,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학업성취도와 행복, 성인기의 성과로 자아인식, 사회적 관계, 건강 그리고 성인기의 행복을 최종성과로 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대학진학률이 70%가 넘는 한국의 초기 청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입, 학력, 범죄여부 등과 같은 변수를 삭제하였다. 각 변인 간의 특징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가정환경으로 살펴보는 부모지원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부모소득 수준은 학업성취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정민·김혜원(2021)이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 중학교 1학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부모의 경제수준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임혜정·이선영(2020)도 2010 서울교육종단연구패널에 9년 동안 참여한 초4~고3 학생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과 부모학력, 성취도는 전 기간에 걸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학령기인 청소년기의 가정환경과 학습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으나, 이를 청년기와 연결한 연구는 많지 않다. Dubow, Boxer, & Huesman

(2009)는 1960년 3학년 학생을 지속해서 추적조사하여 부모의 교육수준이 40년 후, 자녀의 교육과 직업적 성공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SES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성적, 교육수준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를 행복과 같은 삶의 질을 판단하는 것과 연결하여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부모의 지원을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지원과 행복간의 관계도 부모의 사회적 지원을 정서적, 정보적, 경제적으로 나누어 살펴본 박영신·김의철·민병기(2002)의 연구에서 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대학생 8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실제 대학의 성취도에 영향을 주었으며(Li, Wang, & Kim 2022), 이는 청소년기에도 동일하게 작용하여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높을수록 높은 성적을 받고 있었다(Wentzel, Russell, & Baker 2016). Asici & Sari(2021)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방식과 행복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예측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모의 문화적 지원을 다루기 위해 가족이 소유한 책의 수를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소유한 책 권수는 대표적인 문화적 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행복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Asadullah & Tham 2022).

또한 청년기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김동심·윤성혜(2018)는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의 청년취업자를 대상으로 행복에 자기인식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민진·민보경·이민주(2021)는 세대에 따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모든 세대에서 연령, 결혼상태, 사회적 신뢰, 사회적 관계, 건강 등은 행복에 공통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처럼 청년기의 행복에는 청소년기의 특징과 성인기의 특징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은 청소년기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1] 청소년기의 보호자 학력, 가구경제력, 보호자의 정서적 지원, 가구 책 소유 권수는 고등학교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청소년기의 보호자 학력, 가구경제력, 보호자의 정서적 지원, 가구 책 소유 권수, 고등학교 성취도는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청소년기 특성은 성인기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1] 청소년기의 고등학교 성취도, 행복은 청년기의 자아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청소년기의 고등학교 성취도, 행복은 청년기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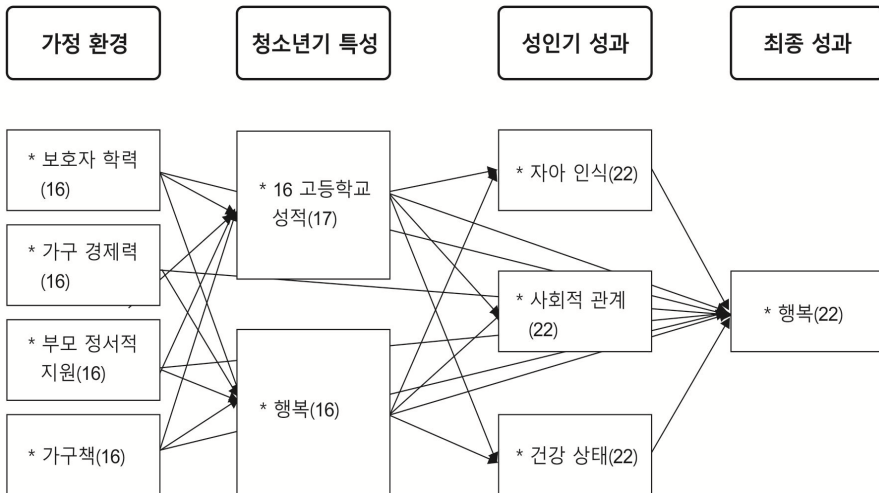
[가설 2-3] 청소년기의 고등학교 성취도, 행복은 청년기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청소년기의 가정환경, 청소년기 특성, 성인기 성과는 성인기 최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1] 청소년의 보호자 학력, 가구경제력, 보호자의 정서적 지원, 가구 책 소유 권수는 청년기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 청소년기의 고등학교 성취도와 행복은 청년기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3] 청년기의 자아인식, 사회적 관계, 건강상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2> 연구모형

주) ()안의 내용은 조사연도임. 고등학교 성취도는 17년 조사에서 확인한 고3 1학기의 성취도를 물어 별도로 표기함.

Ⅲ. 분석대상 및 변수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16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Ⅱ(KEEP Ⅱ)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16년 이후 매년 진행된 패널의 1, 2, 5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1, 2, 5차 패널에서 모두 응답한 총 3,983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5차 패널 조사가 실시된 2022년을 기준으로, 학력은 4년제 재학 및 졸업 54.3%, 고졸 24.7%, 2년제 재학 및 졸업 21.0%순이다. 성별은 남성 51.0%, 여성 49.0%순이고, 지역은 시 43.5%, 광역시 27.2%, 특별시 18.5%, 읍·면 10.8% 순이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징

구분		명	%
학력	고졸	983	24.7
	2년제 재학 및 졸업	838	21.0
	4년제 재학 및 졸업	2,162	54.3
성별	남성	2,033	51.0
	여성	1,950	49.0
전체		3,983	100.0
지역	특별시	735	18.5
	광역시	1,084	27.2
	시	1,731	43.5
	읍·면	430	10.8
	무응답	3	.1
전체		3,983	100.0

2.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1, 2, 5차 패널의 데이터로 <표 2>와 같다.

가정환경 배경요인은 보호자(남성, 여성) 학력,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문화적 지원(책 권수)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1차 패널의 가구 설문지에 응답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보호자의 학력은 ‘학생의 남성 보호자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혹은 다니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남성, 여성 보호자의 응답값을 사용하였다. 물리적 지원은 가구소득을 묻는 문항인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와 가구 소비인 생활비를 묻는 문항인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귀댁의 월평균 생활비는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연속형으로 대답하나 값을 200만 원 단위로 범주형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부모와의 활동과 부모와의 대화에 학생이 응답한 값을 사용하였다. 부모(보호자)와의 활동은 외식하기, 영화/연극/뮤지컬 등, 박물관/미술관/음악회 등, 여행/등산/낚시 등, 운동의 활동빈도를 묻는 5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부모와의 활동 신뢰도 Cronbach's α 를 확인한 결과, .725이다. 부모(보호자)와의 대화는 학교생활, 나의 흥미와 적성, 나의 미래 직업, 학교 및 학과 선택, 삶의 가치관에 대해 대화하는 빈도를 묻는 5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부모와의 대화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5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배경을 확인하기 위한 ‘귀댁은 책을 대략 몇 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라는 1문항에 응답한 값을 사용하였다.

고등학교 성취도는 3학년 1학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의 교과목 내신등급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행복은 ‘귀하는 얼마나 행복합니까?’라는 1문항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자아인식은 자신에 대한 질문 6문항(예: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자아인식 신뢰도 Cronbach's α 를 확인한 결과, .865이다. 사회적 관계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거동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 관해 묻는 3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관계 신뢰도 Cronbach's α 를 확인한 결과, .786이다. 건강상태는 ‘현재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묻는 1문항을 사용하였다.

<표 2>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처리
학력(1)	남성 보호자 학력	1=무학,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여성 보호자 학력	5=2-3년제 대학, 6=4년제 대학, 7=대학원(석사), 8=대학원(박사)
경제력(1)	가구 월평균 소득	1=200만원 이하, 2=200-400만원 이하, 3=400-600만원 이하, 4=600-800만원 이하, 5=800-1,000만원 이하, 6=1,000만원 초과
	가구 월평균 생활비	
정서적 지원(1)	부모와의 활동	1=전혀 하지 않음, 2=1년에 1-2회, 3=한 학기에 1-2회, 4=한 달에 1-2회, 5=일주일에 1-2회
	부모와의 대화	1=전혀 하지 않음, 2=월 1회 정도, 3=주 1-2회 정도, 4=주 3-4회 정도, 5=거의 매일
문화적 배경(1)	가구 책 소유 권수	0=없음, 1=50권 미만, 2=50-99권, 3=100-199권, 4=200-299권, 5=300-499권, 6=500-999권, 7=1,000권 이상
학업성취도(2)	(3학년 1학기) 교과목 내신등급	1=상 1등급 4% 이하, 2=상 2등급 4-11% 이하, 3=상 3등급 11-23% 이하, 4=중 4등급 23-40% 이하, 5=중 5등급 40-60% 이하, 6=중 6등급 60-77% 이하, 7=하 7등급 77-89% 이하, 8=하 8등급 89-96% 이하, 9=하 9등급 96% 초과
행복(1, 5)		1=전혀 행복하지 않다~10=매우 행복하다
자아인식(5)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사회적 관계(5)		1=없다, 2=1-2명, 3=3-4명, 4=5-9명, 5=10명 이상
건강상태(5)		1=매우 허약하다, 2=허약하다, 3=보통이다, 4=건강하다, 5=매우 건강하다

주) ()은 조사차수임.

3.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SPS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그 뒤 AMOS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구조모형 속에서 모든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각 측정변수가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을 경우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할 수 없다. 그 결과,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어 정확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변수들의 평균은 최소 1.99에서 최고 7.91, 표준편차의 평균은 최소 .40에서 최고 1.74이었으며, 왜도는 절댓값 최소 .11에서 최대 .93, 첨도는 절댓값 최소 .03에서 최고 1.17의 값을 보였다. 측정변수의 표준왜도가 2보다 작고 표준첨도가 7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 모형하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므로(Kline 2023), 이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에서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기본 가정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다. 내생변인과 외생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남성보호자 학력, 여성보호자 학력과 행복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결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이것을 제외하고 구조방정식을 실행하였다.

<표 3> 변수의 기술통계 및 변수간의 상관관계

	남보호자 학력	여보호자 학력	가구소득	가구소비	부모활동	부모대화	책	성취도	행복(16)	자아(21)	사회적 관계(21)	건강(21)	행복(21)
남보호자 학력(16)	-												
여보호자 학력(16)	.58*	-											
가구소득(16)	.35*	.36*	-										
가구소비(16)	.34*	.34*	.67*	-									
부모활동(16)	.15*	.17*	.17*	.15*	-								
부모대화(16)	.07*	.08*	.09*	.08*	.22*	-							
책(16)	.38*	.39*	.27*	.26*	.17*	.07*	-						
성취도(16)	-.16*	-.15*	-.11*	-.10*	-.11*	-.09*	-.15*	-					
행복(16)	.01	.03	.06*	.01	.24*	.15*	.04*	-.09*	-				
자아(21)	.08*	.07*	.06*	.05*	.10*	.08*	.07*	-.14*	.19*	-			
사회적 관계(21)	.08*	.08*	.09*	.08*	.09*	.09*	.08*	-.10*	.16*	.25*	-		
건강(21)	-.02	-.03	-.01	-.02	.07*	-.01	-.02	-.06*	.18*	.33*	.11*	-	
행복(21)	.03*	.03*	.07*	.07*	.15*	.10*	.05*	-.10*	.32*	.45*	.21*	.36*	-
평균	4.99	4.73	2.91	1.99	2.58	3.01	3.22	4.02	7.92	3.75	2.75	3.77	7.91
표준편차	1.19	1.14	1.21	.86	.71	1.01	1.84	1.58	1.88	.65	.72	.86	1.74
왜도	.25	.11	.67	.93	.13	.44	.47	.35	-.54	-.58	.47	-.53	-.83
첨도	-.33	.40	.15	1.42	-.33	-.63	-.83	-.08	.21	.91	.19	.03	1.17

주1) * $p < .05$.

주2) ()는 조사가 수행된 연도임.

2.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연구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가설모형에서 보호자학력-고등학교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아 이를 제외한 연구모형의 부합도를 살펴보았다.

<표 4>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경로		<i>B</i>	β	<i>SE</i>	<i>t</i>
청소년기 성취도	← 보호자 학력	-.256	-.141	.040	-6.345*
	← 물리적 지원	.000	.011	.000	.520
	← 정서적 지원	-.670	-.151	.113	-5.918*
	← 문화적 배경	-.037	-.043	.016	-2.365*
청소년기 행복	← 보호자 학력	-.269	-.125	.062	-4.380*
	← 물리적 지원	.000	.009	.000	.396
	← 정서적 지원	2.078	.394	.183	11.382*
	← 문화적 배경	-.020	-.020	.020	-1.012
	← 청소년기 성취도	-.039	-.033	.021	-1.816
청년기 자아인식	← 청소년기 성취도	-.051	-.125	.006	-8.070*
	← 청소년기 행복	.062	.180	.005	11.635*
청년기 사회적 관계	← 청소년기 성취도	-.038	-.083	.007	-5.280*
	← 청소년기 행복	.057	.148	.006	9.472*
청년기 건강상태	← 청소년기 성취도	-.024	-.044	.009	-2.802*
	← 청소년기 행복	.082	.178	.007	11.395*
청년기 행복	← 보호자 학력	-.066	-.034	.044	-1.501
	← 물리적 지원	.000	.009	.000	.532
	← 정서적 지원	.046	.086	.108	3.760*
	← 문화적 배경	.011	.013	.014	.787
	← 청소년기 성취도	-.010	-.009	.015	-.631
	← 청소년기 행복	.154	.184	.015	11.077*
	← 청년기 자아인식	.840	.321	.036	23.216*
	← 청년기 사회적 관계	.176	.075	.032	5.470*
	← 청년기 건강상태	.428	.219	.027	15.882*

* $p < .05$

TLI와 CFI는 .80 이상일 경우, RMSEA는 .10 이하일 경우 수용할 만한 기준으로 판단하였다(Bentler & Bonett 1980; Brown & Cudeck 1993; Sarmento & Costa 2019; Tucker & Lewis 1973). 구조모형의 TLI= .857, CFI= .923, RMSEA= .063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리적 지원-청소년기 성취도, 물리적 지원-청소년기 행복, 문화적 배경-청소년기 행복, 청소년기 성취도-청소년기 행복, 물리적 지원-청년기 행복, 문화적 배경-청년기 행복, 청소년기 성취도-청년기 행복 사이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표 4>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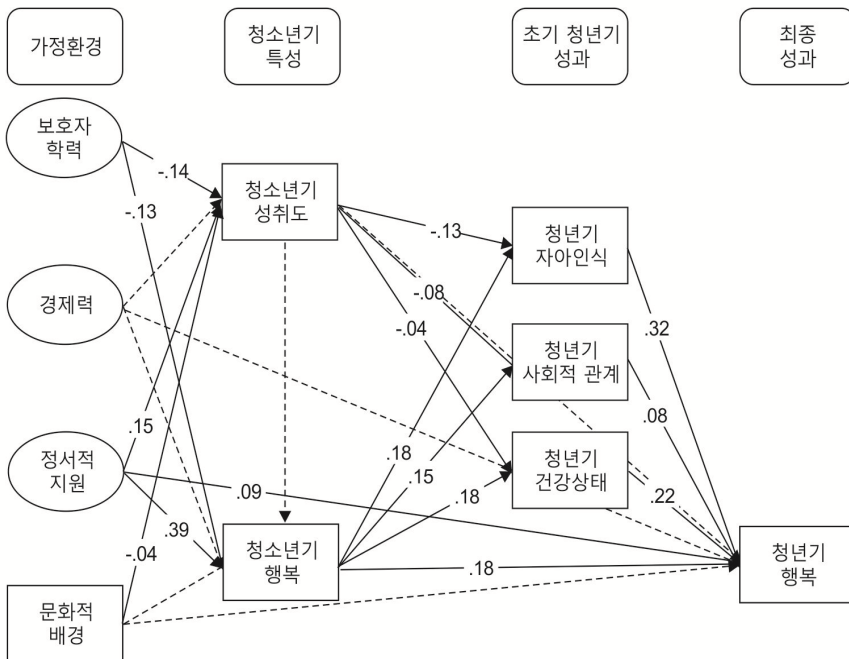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제외한 수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수정모형의 부합도는 TLI= .797, CFI= .882, RMSEA= .072로 나타났다. TLI는 .80 이하이나, 다른 지표가 기준에 부합하고, 거의 .80에 가까운 수준이므로 수용할 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년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그림 3> 참고).

<표 5> 수정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경로		<i>B</i>	β	<i>SE</i>	<i>t</i>
청소년기 성취도	← 보호자 학력	-.256	-.141	.040	-6.345*
	← 정서적 지원	-.670	-.151	.113	-5.918*
	← 문화적 배경	-.037	-.043	.016	-2.365*
청소년기 행복	← 보호자 학력	-.279	-.129	.218	10.905*
	← 정서적 지원	2.078	.394	.183	11.382*
청년기 자아인식	← 청소년기 성취도	-.051	-.125	.006	-8.070*
	← 청소년기 행복	.062	.180	.005	11.635*
청년기 사회적 관계	← 청소년기 성취도	-.038	-.083	.007	-5.280*
	← 청소년기 행복	.057	.148	.006	9.472*
청년기 건강상태	← 청소년기 성취도	-.024	-.044	.009	-2.802*
	← 청소년기 행복	.082	.178	.007	11.395*
청년기 행복	← 정서적 지원	.046	.086	.108	3.760*
	← 청소년기 행복	.154	.184	.015	11.077*
	← 청년기 자아인식	.840	.321	.036	23.216*
	← 청년기 사회적 관계	.176	.075	.032	5.470*
	← 청년기 건강상태	.428	.219	.027	15.882*

* $p < .05$

먼저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특성인 청소년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가구의 경제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p > .05$), 정서적 지원($\beta = -.15$), 보호자의 학력($\beta = -.14$), 문화적 배경($\beta = -.04$)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 기존의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청소년기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보호자 학력, 경제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p > .05$), 정서적 지원($\beta = .39$, $p < .05$), 문화적 배경($\beta = -.06$, $p < .05$)순으로 영향을 미쳐 가설의 일부분이 기각되었다. 청년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면, 청년기 자아인식에는 청소년기의 성취도와 행복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청소년기 행복($\beta = .18$, $p < .05$), 청소년기 성취도($\beta = -.13$, $p < .05$) 순으로 영향을 미쳐 청소년기에 높은 학업적 성취를 가지고, 행복한 시기를 보낸 경우, 청년기의 자아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와 건강상태도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성과인 청년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보호자



<그림 3> 최종 연구모형

주) 실선: 유의한 경로, 점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

의 학력, 경제력, 정서적 지원, 문화적 배경, 청소년기 성취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의 부분적 지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년기 자아인식($\beta = .32, p < .05$), 건강상태($\beta = .22, p < .05$), 청소년기의 행복($\beta = .18, p < .05$), 청년기 사회적 관계($\beta = .08, p < .05$)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모형의 직·간접효과 분해표는 <표 6>과 같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여부를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Kline 2005). 청소년기 성취도를 매개로 하여 청년기 자아인식에 미치는 청소년기 보호자 학력의 검정통계량 $z = 5.11(p < .05)$, 물리적 지원 $z = 0.00(p > .05)$, 정서적 지원 $z = 4.59(p < .05)$, 문화적 배경 $z = 2.20(p < .05)$ 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기 성취도를 매개로 하여 청년기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청소년기 보호자 학력의 검정통계량 $z = 4.13(p < .05)$, 물리적 지원 $z = 0.00(p > .05)$, 정서적 지원 $z = 4.00(p < .05)$, 문화적 배경 $z = 2.13(p < .05)$ 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 성취도를 매개로 하여 청년기 건강상태에 미치는 청소년기 보호자 학력의 검정통계량 $z = 2.46(p < .05)$, 물리적 지원 $z = 0.00(p > .05)$, 정서적 지원 $z = 2.43(p < .05)$, 문화적 배경 $z = 1.74(p < .05)$ 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 행복을 매개로 하여 청년기 자아인식에 미치는 청소년기 보호자 학력의 검정통계량 $z = -5.68(p < .05)$, 물리적 지원 $z = .00(p > .05)$, 정서적 지원 $z = -5.35(p < .05)$, 문화적 배경 $z = -2.27(p < .05)$ 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기 행복을 매개로 하여 청년기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청소년기 보호자 학력의 검정통계량 $z = -3.94(p < .05)$, 물리적 지원 $z = 0.00(p > .05)$, 정서적 지원 $z = 7.28(p < .05)$, 문화적 배경 $z = -.99(p > .05)$ 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 행복을 매개로 하여 청년기 건강상태에 미치는 청소년기 보호자 학력의 검정통계량 $z = -4.10(p < .05)$, 물리적 지원 $z = 0.00(p > .05)$, 정서적 지원 $z = 8.37(p < .05)$, 문화적 배경 $z = -.99(p > .05)$ 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성취도가 청년기 자아인식을 통해 청년기 행복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z = -7.99(p < .05)$, 사회적 관계 $z = -4.62(p < .05)$, 건강상태 $z = -7.49(p < .05)$ 로 확인되었다. 즉,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청년기의 정서적 지원이 청년기의 자아인식, 사회적 관계, 건강상태에는 직접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기 성취도와 청소년기의 행복을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기 성취도도 청년기 행복에 직접적 영향력을 가지지 않지만, 청년기 자아인식, 사회적 관계, 건강상태를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를 가졌다.

<표 6> 직·간접효과 분해

관계 변인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청소년기 성취도	← 보호자 학력	-.269	-.269	.000	-.148	-.148	.000
	← 물리적 지원	.000	.000	.000	.011	.011	.000
	← 정서적 지원	-.610	-.610	.000	-.137	-.137	.000
	← 문화적 배경	-.039	-.039	.000	-.046	-.046	.000
청년기 자아인식	← 보호자 학력	.014	.000	.014	.019	.000	.019
	← 물리적 지원	.000	.000	.000	-.007	.000	-.007
	← 정서적 지원	.161	.000	.161	.089	.000	.089
	← 문화적 배경	.063	.063	.000	.284	.284	.000
	← 청소년기 성취도	-.053	-.051	-.002	-.130	-.125	-.005
	← 청소년기 행복	.062	.062	.000	.180	.180	.000
청년기 사회적 관계	← 보호자 학력	.011	.000	.011	.013	.000	.013
	← 물리적 지원	.000	.000	.000	-.006	.000	-.006
	← 정서적 지원	.142	.000	.142	.070	.000	.070
	← 문화적 배경	-.001	.000	-.001	-.004	.000	-.004
	← 청소년기 성취도	-.040	-.038	-.002	-.087	-.083	-.004
	← 청소년기 행복	.057	.057	.000	.148	.148	.000
청년기 건강상태	← 보호자 학력	.007	.000	.007	.007	.000	.007
	← 물리적 지원	.000	.000	.000	-.006	.000	-.006
	← 정서적 지원	.186	.000	.186	.077	.000	.077
	← 문화적 배경	-.003	.000	-.003	-.007	.000	-.007
	← 청소년기 성취도	-.027	-.024	-.003	-.049	-.044	-.005
	← 청소년기 행복	.082	.082	.000	.178	.178	.000
청년기 행복	← 보호자 학력	-.031	-.052	.021	-.016	-.027	.011
	← 물리적 지원	.000	.000	.000	-.002	.008	-.010
	← 정서적 지원	1.012	.423	.589	.214	.089	.124
	← 문화적 배경	.000	.011	-.010	.000	.012	-.011
	← 청소년기 성취도	-.079	-.010	-.068	-.074	-.011	-.064
	← 청소년기 행복	.260	.164	.097	.290	.182	.108
	← 청년기 자아인식	.839	.839	.000	.321	.321	.000
	← 청년기 사회적 관계	.176	.176	.000	.075	.075	.000
	← 청년기 건강상태	.428	.428	.000	.219	.219	.00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기 청년기의 행복에 청소년기의 다양한 특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Ⅱ(KEEPⅡ)의 종단 데이터 3,983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논의한다.

첫째, 청소년기의 가정환경 중 부모의 경제력을 제외한 대부분이 청소년기 성취도, 행복, 청년기의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 초등학생, 대학생, 대상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이정민·김혜원 2021; 임혜정·이선영 2020; Dubow, Boxer, & Huesman 2009)에서 부모의 소득수준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성취도, 행복, 청년기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유진 외(2020)는 부모의 교육과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참여시간이 증가하고, 이는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즉,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청소년기 성취도, 행복, 청년기의 행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대비되는 결과로, 궁극적 행복이 단순히 물질적 개념만으로 접근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 돌봄시간은 2000년대 후반 증가하기 하였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평균 2~3시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 보호자와 여성 보호자의 양육시간 차이도 크다(차승은 2013). 따라서 부모의 자녀 양육을 위한 보다 많은 절대적 시간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노동문화가 변화해야 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기의 행복은 청년기의 행복에 영향을 미쳤지만, 성취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청소년기의 성취도는 대학 입학에서의 성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실제 청년이 인식하는 행복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낸 청년이 청년기 또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는 물질적 풍요만을 강조하고, 이것이 행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으로 인식하여,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에만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행복의 중요성과 다양한 행복의 조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청년기에 형성된 자아인식, 사회적 관계, 건강상태는 청년의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청년기는 현실적인 자아인식이 자리잡아 가는 시기(박아청 2004), 자아인식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청년기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을 통해 앞으로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높은 자아인식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학이나 취업기관 등에서의 교육은 청년이 자아인식을 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상태도 행복에 두 번째로 영향을 주고 있어, 청년기는 사회진출과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단계로서, 자신 및 인생 전반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행복에 세 번째로 영향을 미쳤다. COVID-19 감염병 확산 이후, 청년기의 사회적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라 노동시장 및 사회활동 참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정주호 외 2022).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욕구로 살펴본 Alderfer(1967)의 이론의 모든 요소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존재, 관계, 성장 순으로 상위욕구로 표현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행복에 성장, 존재, 관계 순으로 영향을 주어, 관계적 욕구의 낮은 영향력이 개인 중심적 성향의 세대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Layard et al.(2014)의 모형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행복에 청년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종단적으로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행복이란 인생의 목적과 의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행복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년의 행복에 주는 청년기의 영향력을 양적으로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 청소년기가 청년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질적 연구를 통해 부모의 학력이 청소년기의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청년기의 높은 자아인식이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과정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청년의 행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청년기의 행복에 영향을 줄 다양한 변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행복모형에 기반하여 청년기의 성과로 수입, 학력, 직업 등의 변인을 확인하여 행복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행복한 청년기를 보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학력은 본 연구에서 재수, 휴학 등으로 인한 변동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여 다루었다. 실제 20대 후반에 학력을 포함하여 본 모형을 살펴본다면, 학력과 행복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복에 대해 역U자형의 특징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낮은 행복감을 보이는 노년층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생애 전주기의 특성이 각각의 시기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21(2): 95-130.
- 교육부·질병관리청. 2022.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청.
- 김동심. 2022. “온라인교육 확대에 따른 대학생의 학습과 일상의 변화.”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8(4): 929-957.
- 김동심·윤성혜. 2018. “청년취업자의 직무만족도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수면시간, 자기인식, 사회신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9(1): 53-70.
- 김택호·정형화. 2019.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사이버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7: 27-49.
- 박민진·민보경·이민주. 2021. “미래세대의 행복과 영향 요인 연구: MZ 세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34(4): 121-147.
- 박아청. 2004.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의 특성분석.” 《교육심리연구》 18(1): 301-312.
- 박영신·김의철·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배정희. 2022. “코로나 19 전후 청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우울 변화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53(4): 121-146.
- 배희분·서주현·김효선. 2017. “고 3 시기 부모의 정서적·물리적 지원이 대학생의 대학 전공만족도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3(6): 229-249.
- 변금선·이혜림. 2023.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30(2): 127-156.
- 송진열. 2017.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 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2): 335-345.
- 염유식·성기호. 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이의빈·엄명용·김진원. 2021. “부모의 과잉간섭이 대학생 자녀의 삶의 목표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3(3): 205-228.
- 이정민·김혜원. 2021. “부모의 경제수준이 중학생 자녀의 학업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22(3): 665-691.
- 이지혜·최영출. 2014. “청소년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요인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8(2): 67-84.
- 임혜정·이선영. 2020. “가정배경이 국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초 4-고 3 시기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52: 53-71.
- 장유진·이승연·송지훈·홍세희. 2020. “부모 학력과 경제 수준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 시간과 학업 스트레스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2): 249-273.
- 정유진·김혜선. 202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양성평등의식을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다문화사회연구》 15(2): 109-143.
- 정주호·한연수·김동욱·조민호. 2022. “코로나 19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유형화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32(4): 1-32.
- 주영주·김수미·박수영·김은경. 2009. “기업 사이버교육 학습자들의 내적통제소재, 조직의 지원, 학습몰입, 학업지속의향 간의 구조적관계 규명.” 《교육과학연구》 40(3): 239-263.
- 차승은. 2013. “한국의 사회동향: 자녀돌봄 시간의 변화.” 통계개발원.
- 통계청. 2022. 《2021년 사망원인 통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23. 《국민 삶의 질 2022》. 대전: 통계개발원.
- 하랑경·심혜원·김강희·박신아. 2020. “청년가구의 부채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0(4): 295-331.
- 한승헌·임다혜·강민아. 2017.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 (precariousness) 과 행복: 불확실성과 통제권한 부재의 매개효과.” 《한국사회정책》 24(2): 87-126.
- 허중호·민보경·이상직·이채정. 2022.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2차조사)》.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 Alderfer, C.P. 1967.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of Satisfaction and Desire Measures by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1 (6): 509-520.

- Aquilino, W.S. and A.J. Supple. 2001. "Long-term Effects of Parenting Practices during Adolescence on Well-being Outcomes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22(3): 289-308.
- Asici, E. and H.I. Sari. 2021. "A Proposed Model to Explain Happiness in College Students: The Roles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Emotional Self-efficacy, and Forgivenes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28(4): 332-345.
- Asadullah, M.N. and E. Tham. 2023. "Learning and Happiness during Covid-19 School Closure in Urban Malaysia."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102822.
- Bentler, P.M. and D.G. Bonett.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606.
- Blanchflower, D.G. and A.J. Oswald.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1359-1386.
- Blanchflower, D.G. and A.J. Oswald. 2008. "Is well-being U-shaped over the Life Cycle?." *Social Science & Medicine* 66(8): 1733-1749.
- Brown, M.W. and R. Cudeck.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A. and Long, J.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UK: Sage
- Coffey, J.K. and M.T. Warren. 2020. "Comparing Adolescent Positive Affect and Self-esteem as Precursors to Adul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Motivation and Emotion* 44(5): 707-718.
- Coffey, J.K., M.T. Warren, and A.W. Gottfried. 2015. "Does Infant Happiness Forecast Adult Life Satisfaction? Examining Subjective Well-being in the First Quarter Century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6: 1401-1421.
- De Coninck, D., K. Matthijs, and P. Luyten. 2019. "Subjective Well-being among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A Two-wave Prospective Study in Flanders, Belgium." *Student Success* 10(1): 33-45.
- Dubow, E.F., P. Boxer, and L.R. Huesmann. 2009. "Long-term Effects of Parents' Education on Children's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Success: Mediation by Family Interactions, Child Aggression, and Teenage Aspira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55(3): 224-249.
- Easterlin, R.A. 2006. "Life Cycle Happiness and Its Sources: Intersections of Psychology, Economics, and Demograph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7(4): 463-482.
- Layard, R., A.E. Clark, F. Cornaglia, N. Powdthavee, and J. Vernoit. 2014. "What Predicts a Successful Life? A Life-course Model of Well-being." *The Economic*

- Journal* 124(580): F720-F738.
- Li, X., Y.W. Wang, and Y.H. Kim. 2022. "The Moderation of Parent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ace-related Career Barriers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9(2): 363-377.
- Lyubomirsky, S., L. King, and E. Diener.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855.
- Marquez, J., I. Katsantonis, R. Sellers, and G. Knies. 2022. "Life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from Age 17 to 21 Years in a General Population Sample." *Current Psychology* 1-11.
- Martin-Krumm, C., F. Fenouillet, A. Csillik, L. Kern, M. Besançon, J. Heutte, Y. Paquet, Y. Delas, M. Troussellard, B. Lecorre, and E. Diener. 2018. "Changes in Emotions from Childhood to Young Adulthood." *Child Indicators Research* 11: 541-561.
- Ng, Y.K. 2015. *Happiness, Life Satisfaction, or Subjective Well-being? A Measurement and Moral Philosophical Perspective*. 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Nikolova, M. and B.N. Nikolaev. 2021. "Family Matters: The Effects of Parental Unemployment in Early Childhood and Adolescence on Subjective Well-being Later in Lif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81: 312-331.
- Sarmiento, R.P. and V. Costa. 2019.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 Case Study." arXiv preprint arXiv:1905.05598.
- Tucker, L.R. and C. Lewis.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1): 1-10.
- Veenhoven, R. 2011. "Happiness: Also Known as "Lif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Handbook of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pp. 63-77). Netherlands: Springer.
- Wentzel, K.R., S. Russell, and S. Baker. 2016. "Emotional Support and Expectations from Parents, Teachers, and Peers Predict Adolescent Competence at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8(2): 242-255.

<접수 2023.08.31; 2023.09.19; 게재확정 2023.10.28.>

Does Adolescence Affect the Happiness of Early Youth?

Dongsim Kim
(Hanshin University)
Jong-Seok Byun
(Hanshi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influence of adolescence on the happiness of young people by using data from 3,983 individuals in the 1st, 2nd, and 5th rounds of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urvey II (KEEPII).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s how the home environment during adolescence (including parental education, economic and emotional support, and cultural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achievement, happiness), and outcomes in youth (self-awareness,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tatus) affect the final outcome, which is happiness in youth.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st factors, except for the economic power of the home environment based on parents in childhood, influenced high school achievement, happiness in adolescence, and happiness in youth. Second, happiness in adolescence had an impact on happiness in youth, but achievement did not. Third, self-awareness,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tatus formed during youth positively influenced happiness. Based on these findings, suggestions for promoting the happiness of young people are proposed.

Key words: youth, happiness, adolescence, home environment, achievement, self-awareness, social relationships, health status